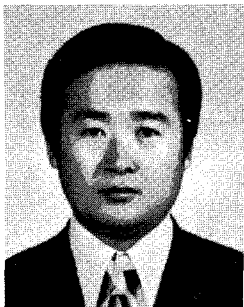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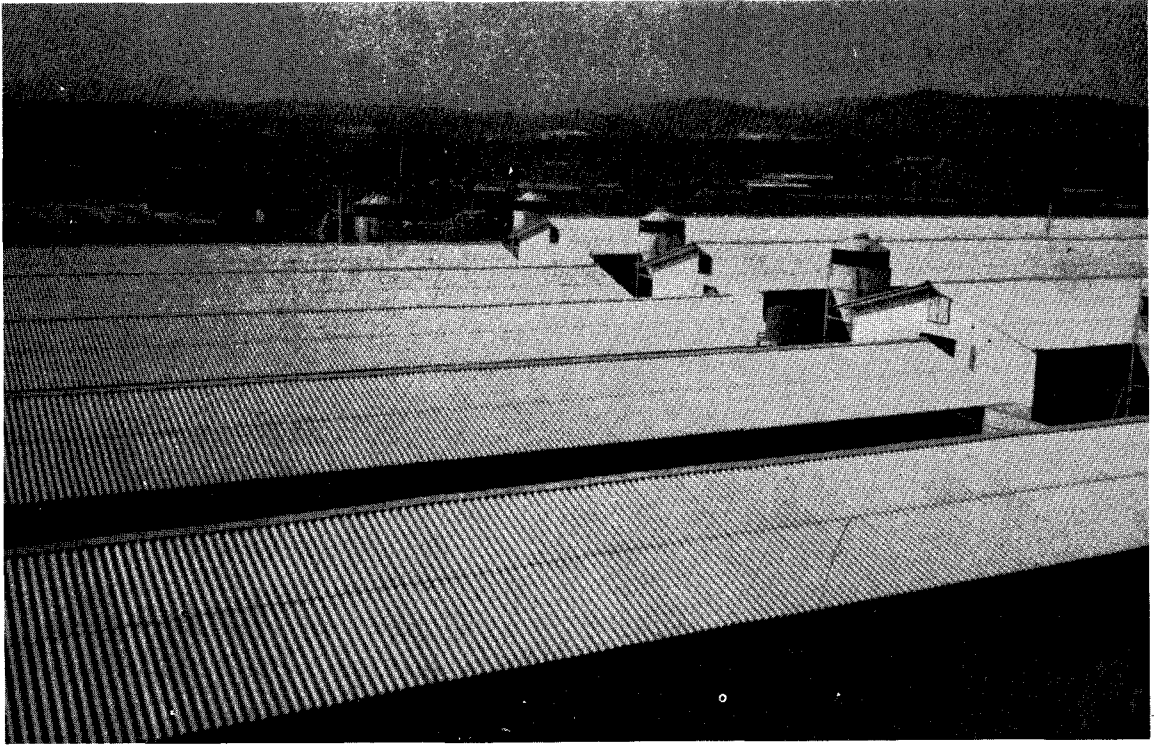


# 88년 국제사료 원료 시세 동향



김 동 수  
옥성씨비스상사 대표

사료는 국민의 영양문제와 경제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근원

축산업 발전의 근원은 축산물 생산원자재인 사료원료 가격에 따라 좌우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축산업은 광활한 토지와 잉여곡물이 충분한 나라에서 식량을, 또는 식량화 할 수 있는 농후사료를 가

축에게 급여하여 가축으로 하여금 인간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단백질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양질의 식량으로 공급받고자함이 그 목적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책임이윤이 보장 받아야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쌀과 보리와 서류(薯類)만이 자급자

족 될뿐 기타 곡물은 계속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곡물 총소비량 중 국내 총생산량이 차지하는 소위 '자급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어 몇년전부터는 40%정도의 자급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중<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용 원료가 될 수 있는 옥수수 와 콩 소맥의 국내 자급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즉 자급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족분은 외국에 의존, 수입하고 있다는 데에 해결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식생활 개선을 해결키 위한 것으로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와 식생활로 인한 영양문제는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및 생명유지와 건강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비단 개인의 건강문제는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그 가족 그가 속한 직장과 단체에 영향을 주며, 특히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식생활은 엄청난 물량의 생산과 소비가 수반되는 지대한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이 다.

축산 관계자는 그 중<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물성 단백질의 수요증가에 대한 조달방법에 따라서는 국민의 식생활과 경제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인 사료부분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사료부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사료부분 중 90%이상의 주요원료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 # 1> 전체식량 자급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주곡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87.3
'81	43.2	66.2	72.7	2.7	6.1	29.7	100.0	89.1	67.3
'82	53.3	93.7	85.9	3.4	4.9	32.4	100.0	22.5	91.8
'83	50.2	97.6	129.0	6.0	2.8	25.7	100.0	26.2	100.2
'84	48.7	97.5	103.9	0.6	3.1	23.5	100.0	10.1	101.2
'85	48.4	103.3	82.6	0.4	4.1	22.5	100.0	11.6	101.0
'86잠정	44.5	97.0	84.3	0.1	3.5	18.8	100.0	14.6	95.9
'86계획	44.0	100.1	122.2	0.2	2.7	16.7	100.0	3.5	102.2

<표 2> 동물성 단백질비와 곡류에너지비의 연차적 추이 (국민 1인 1일당)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동물성단백질비(%)	20.2	28.7	28.7	32.6	37.8	41.2
곡류에너지비(%)	82.3	78.0	77.4	77.9	72.9	69.5

한국의 사료산업에 대하여 국제사료원료 시세동향을 점검함으로써 88년을 예측코자 하며, 더불어 미려한 필자가 논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라 생각된다.

다만 미려한 자의 이야기가 '88 한국축산에 보탬이 되길 기원할 뿐이다.

**88년 시세동향**

**US 옥수수**

'85~'86 2년간은 한국의 경우 특히 미산 옥수수 중심에서 중공산 옥수수를 종전의 미산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87년부터는 미산보다 중공산이 고가로 형성되어 구매가 여의치 아니하였는데, 이는 중공의 축산업 발달로 자국내 수요증가와 중공의 저가 수출위주정책에서 고가 수출정책으로 변함에 따라 88년 역시 미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여져 중공산 옥수수 구매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85~86년 태국산 옥수수 역시 미산, 중공산보다 품질면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리하여 구매 사용하였으나, 87년부터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특히 87년은 일기불순, 식부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이 격감되어 수출여력이 미려함으로써 태국산 옥수수 역시 구매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86년 아르헨티나산 옥수수를 구매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나 최근 아르헨티나 옥수수 가격이 고가 이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며 옥수수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율이 높은 대두쪽으로 전장이 진행되어 옥수수 식부면적은 '87/'88 대비 15~20%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역시 수출여력 부족으로 88년의 염가구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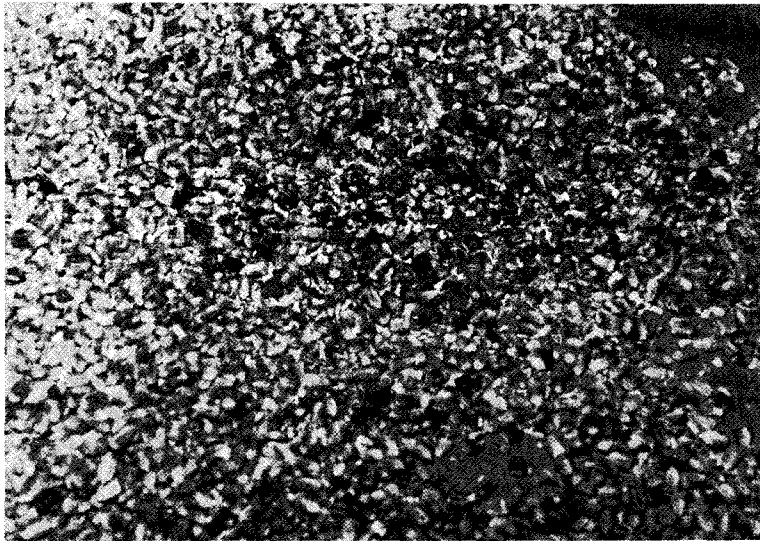
< # 3 > U.S 옥수수 수급예상

\* '87. 11. 9. 현재 전년동기 대비<단위:백만BU>

구분 / 년도	'86-'87	'87-'88	비 고
공 급 계	12,294	12,050	↓ 1.98%
기 초 재 고	4,040	4,882	
생 산 량	8,253	7,166	
수 입 량	2	2	
수 요 계	7,412	7,725	↑ 4.22%
사 료 용	4,717	4,800	
식품 및 기타	1,191	1,225	
수 출	1,504	1,700	↑ 13.03%
기 말 재 고	4,882	4,325	↓ 11.41%

•상기와 같이 미국이외 세계적 옥수수수출국인 중공, 태국, 아르헨티나의 88년 옥수수 수출여력이

보여짐.  
•이상과 같은 경쟁국의 수출여력문제, 수요·공급문제와 더불어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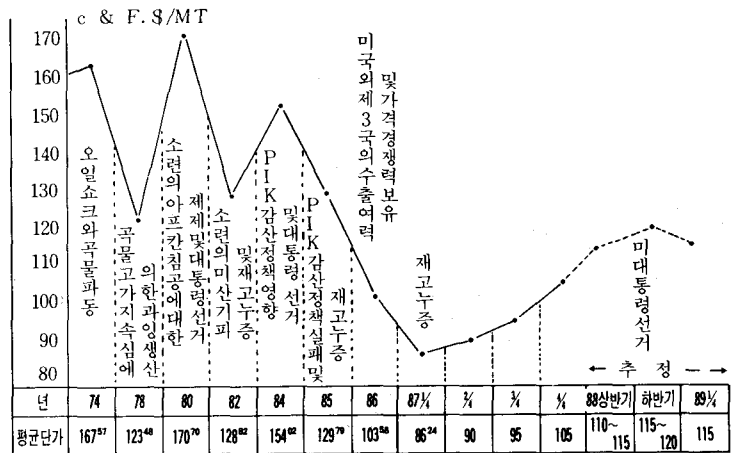


미미한 실정이며 소련, 인도 등에서 미국산 옥수수의 대량구매가 예상되어 미국은 88년 옥수수 최대 수출국(과거도 그랬지만)으로 부상하게 되고 미산 옥수수가격을 견제할 만한 나라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가운데 < #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은 1.98%감소, 수요는 4.22%증가하여 기말재고는 무려 11.41%나 감소하게 됨으로 88년 미산 옥수수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제 외적인 요인 중 88년은 미국 대통령선거의 해로서 재고가 상당량 있다 하더라도 가격은 < #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강세 현상은 88년도 1/4분기말 또는 89년도 1/4분기경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짐.

기타 원료

- 사료용 소맥 등: 캐나다의 재고부족과 호주의 수출여력 감소, EC의 약간의 수출여력관계 등으로 그간 C&F 80~85 \$/MT에서 88년 하반기에는 구매자체가 의문시 되며, 가격은 C&F \$/MT 100\$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 역시 옥수수 가격양등으로 옥수수 대비 크게 저렴할지 의문시 됨.
- 대두박: 소련의 대량구매 등으로 미산은 계속 강세가 예상되며 88년에는 87년 대비 약 20%정도의 양등이 예상된다.
- 소맥피: 국제 원맥 가격상승과 도입 소맥피의 원활한 공급 애로로 88년에는 87년 대비 국내의 공히 약 20%정도의 양등이 예상된다.





### 결론

- 종합적으로 볼때 사료원료의 약 90%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해외부분에서 약 20% 이상의 원가상승 압박으로 (단순계산시 원가:  $90\% \times 20\% = 18\%$  ↑) 배합사료 원재료비 가격에 약 18% 정도의 원가상승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 원화절상 10% 원가상승 20%요인 약 9% ( $90\% \times 10\% = 9\%$  ↓) 상쇄시킬 수 있으나, 고가인 국산 옥수수 사용문제,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가 88년을 기다리고 있으나,
- 해외부분에서 저가 양질원료의 구매를 위한 수입선의 다변화, 원료의 다종화 등을 통하여 원재료비 상승을 상쇄하여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나 색상 관계로 ("예" 타피오카는 88년 유망품목) 구매를 기피하거나, 양축농가 역시 사료의

색깔이 문제되어 저질사료로 매도하는 식의 자체는 이제 불식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생물을 사육하는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과거·현재·미래에도 한국에서는 과잉생산 10%가 가격을 30~40% 폭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적정사육규모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된다.

• 또한 양축농가는 20여년동안 습관에 젖은 방법과 관습에 의한 사료의 품질과 가격을 검토함에 있어 경쟁사의 경쟁을 통한 구매방법을 지양하고 배합사료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L.C.F (Least Cost Form) 즉 가장 싸고 질(質) 좋은 배합비를 재조공장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토·분석·작성할 수 있는 능력과 배합사료공장의 재무제표, 제조경비 등을

검토하는 능력이 있을 때 양질의 배합사료를 염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 잠깐 생각해 봅시다

법과 질서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것 같은 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딱딱하게 느껴진다. 법과 질서 이전에 도덕성이라는 낱말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어감이 좋다.

모재벌회사에서 중소영세상이나 할 수 있는 면장갑 제조공장과 두부·콩나물공장까지 경영한다 하여 세간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엄밀하게 보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사람 모두는 그 재벌을 욕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법적 하지는 않다하지만, 즉 사업상 중소업자의 영역인 바 재벌이 참여하여야 하겠는가하는 도덕적인 문제관계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 축산업 주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가?

축산업은 자유업에 속한다. 누구든지 적법절차만 밟으면 닭·돼지·소를 얼마든지 사육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나 축산업에 투자하여, 즉 재벌과 도시의 자본주가 농촌에 축산을 천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양축농가의 영역까지 무제한 침투하여 그들의 생업이 위협받는 현상까지 발생해도 이를 법으로만 잘 못된 것이 없다 할 것인가!

법(法)이전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법은 약한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88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런지...